

가톨릭마산

연중 제6주일
2025년 2월 16일
제2657호

태평동성당
since 1929.5.25.

본당주보 : 묵주기도의 모후
현소재지 : 경상남도 통영시 중앙로 177



구 태평동성당



성전



주일 진레

- | | |
|---------|---|
| 제 1 독 서 | 예레 17,5-8 |
| 화 답 송 | ◎ 행복하여라,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 |
| 제 2 독 서 | 1코린 15,12,16-20 |
| 복음 환호송 | ◎ 알렐루야. |
| | ○ 주님이 말씀하신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보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 |
| 복 음 | 루카 6,17,20-26 |
| 영 성 체 송 | 그들은 실컷 먹고 배불렀네. 주님이 그들의 바람을 채워 주셨네.
그들의 바람을 저버리지 않으셨네. |



이창범 라자로 신부

옥포 보좌

“ 행복 선언의
대상이 되는 이들은
주님을 신뢰하는
이들이라 할 수 있고,
불행 선언의 대상이 되는
이들은 사람에게
의지하는 자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

행복과 불행의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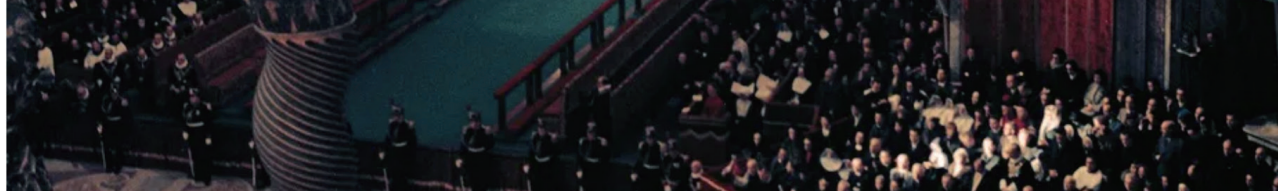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서는 ‘가난하고, 굶주리며, 울고, 사람들로부터 미움 받는 이들’을 향해 ‘행복하여라’하시며, 반대로 ‘부유하고, 배부르며, 웃고, 사람들로부터 좋게 평가되는 이들’을 향해 ‘불행하여라’하고 말씀하십니다. 의아합니다. 행복과 불행의 기준이 너무나 쉽게 바뀌는 것들입니다. 만약 저녁을 먹지 않은 상태라서 배가 고프면 행복 선언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저녁을 먹고나서 배가 부르면 불행 선언의 대상이 되는 것일까요? 도대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행복과 불행 선언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독서의 말씀을 살펴보려 합니다.

오늘 제1독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을 소개합니다. 한 부류는 “사람에게 의지하는 자와 스러질 제 몸을 제힘인 양 여기는 자”이며, 다른 부류는 “주님을 신뢰하고 그의 신뢰를 주님께 두는 이”입니다. 이 말씀과 더불어서 복음을 살펴보면, 행복 선언의 대상이 되는 이들은 주님을 신뢰하는 이들이라 할 수 있고, 불행 선언의 대상이 되는 이들은 사람에게 의지하는 자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곧, 행복 선언과 불행 선언의 기준은 우리의 신뢰를 어디에 두느냐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가난하고, 굶주리며, 울고, 사람들로부터 미움받기에, 이를 이겨내기 위해 사람들에게 의지하려고 하면 불행할 것입니다. 지금 부유하고, 배부르며, 웃고, 사람들로부터 좋게 평가받지만, 그 모든 것을 허락해주신 하느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면 행복할 것입니다. 행복과 불행의 기준은 외적 요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행복은 당신과 함께하는 행복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불행은 당신과 함께하지 않는 불행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우리를 찾아와도, 주님과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기에 행복합니다. 어떤 좋은 것이 우리에게 있어도, 주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영원하지 않기에 불행합니다.

우리는 지금 행복과 불행 중 어떤 기준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뢰를 주님께 드리면서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며,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행복하여라.’ 하고 말씀하실 수 있는 신앙인이 되도록 노력하는 한 주간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세상과 ‘함께’하겠다는 선언, ‘제2차 바티칸 공의회’

하춘수 레오 신부

2025년 올해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폐막 60주년’이다. 1962년에서 1965년까지 총 4회의 회기에 걸쳐 서구의 주교들 뿐만 아니라 아시아와 아프리카, 남미 그리고 오세아니아의 주교들이 참석하는 세계공의회가 로마 바티칸에서 개최되었다. 요한 23세 교황은 이 공의회가 교리나 이단에 대한 공의회가 아니라 ‘사목적 공의회’가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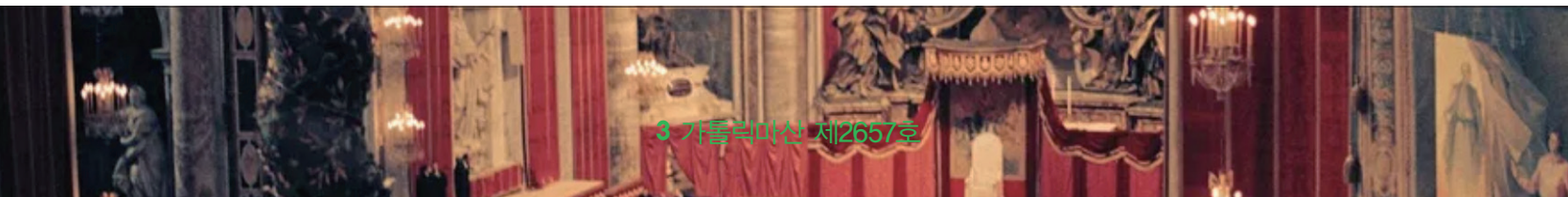
당시 세계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대립하고, 전쟁과 독재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는 시기였고 시민권이 향상되고 그야말로 급변의 시대였는데 비해, 가톨릭 교회는 이러한 사회의 흐름에 크게 상관하지 않고 살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소집된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주제는 ‘Aggiornamento’(아조르나멘토, 적응)이었다. 전례와 교의, 그리고 사목에 있어서 큰 전환을 이룬 공의회이다.

공의회에서 교회는 전례의 핵심 공간인 ‘제대의 방향’을 바꾸었다. 교우들을 등지고 벽천정을 향하여 거행하던 미사전례가 이제는 교우들을 바라보며 거행하게 되었다. ‘사목’이라는 말의 의미가 확장되었다. 이전에 교회의 영역에서 세상 밖으로 확장되었고 사목의 주체도 ‘성직자’에서 ‘교회 구성원 모두’로 확장되었다. 이제 교회는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방법을 배워나가고 있다. 그것은 교회가 세속화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안에 들어가 복음의 빛을 밝히는 일이다. 교회는 세속화되어서는 안 된다. 타락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세상 안으로 들어가 폭력과 차별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을 만나 ‘복음의 기쁨’을 선포해야 한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현대 세계의 사목현장’(Gaudium et Spes)은 다음과 같이 시작한다. 복합구조를 가진 문장이므로 단번에 눈에 들어 오기는 힘들겠지만 천천히 곱씹으며 읽어 본다면 교회의 단호한 결의를 느낄 수 있는 명문장이다. 유심히 읽어 보자!

“기쁨과 희망(Gaudium et Spes), 슬픔과 고뇌, 현대인들 특히 가난하고 고통 받는 모든 사람의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제자들의 기쁨과 희망이며 슬픔과 고뇌이다. 참으로 인간적인 것은 무엇이든 신자들의 심금을 울리지 않는 것이 없다. 그리스도 제자들의 공동체가 인간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 안에 모인 그들은 하느님 아버지의 나라를 향한 여정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모든 사람에게 선포하여야 할 구원의 소식을 받아들였다. 따라서 그리스도 제자들의 공동체는 인류와 인류 역사에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음을 체험한다.”

60년이 흘렀다. 과연 지금 우리 가톨릭교회는 얼마나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는가? 하느님께서 인간이 되어 세상에 오셨음을 믿는 우리 교회는 문을 열고 마음을 열고 세상 안에 나아 가야 한다. 거기서 눈물 짓고 신음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2000년 전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그들의 어깨를 다독여 주어야 한다.



하느님, 맏소사!

김유철 스테파노 시인 / 가톨릭문인회

어느 시인은 "하늘을 우러러 /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하고 읊었지만 / 나는 마음이 하도 망측해서 / 하늘을 우러러 부끄럽고 어찌구커녕 / 숫제 두렵다. <고백> 일부

가톨릭 시인 구상具常(1919~2004)의 작품이다. 이제는 하느님 품안에 있는 구상 시인은 인생말기에 머물던 한강이 내려다보이는 곳에 위치한 그의 집을 관수재觀水齋라 불렀다. 세상 사람들은 하얀 턱수염의 그를 위대한 시인이요 선생님이라 불렀지만 그는 늘 하느님 앞에 드리운 자신의 긴 그림자를 부끄러워했다. 시인의 작품 한 편을 더 열어 본다.

이제 머지않아 나는 / 저승의 관문, 신령한 거울 앞에서 / 저런 추악망측한 나의 참 모습과 / 마주해야 하니 이 일을 어찌랴! / 하느님, 맏소사! <임종고백> 일부

시인은 평생 자신이 걸어갔던 삶의 길과 신앙의 대상 앞에 선 마음을 '하느님, 맏소사!'란 시어로 가름했지만 그 외마디를 가로지르는 그림자의 깊이는 미루어 짐작할 뿐이다. 시는 언어를 사용하지만 그 말의 개념적 의미를 넘는다. 구상 시인의 시를 읽을 때마다 그가 지닌 신앙의 깊이를 절감한다.

한국의 종교 인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지금 여기서 마주하는 오늘의 모습과는 너무나 대조되는 현실이다. 매년 발표되는 <한국의 종교현황>을 보면 한편으로 놀랍고 또 다른 한편으로 우스운 것은 각 종단이 밝힌 종교인의 합계가 총인구보다 많다는 사실이다. 자신의 종교를 2종 혹은 3종으로 등록한 것이 아닌 다음에야 어디선가 허깨비 숫자가 들어간 것임에 틀림없다. 그토록 종교인구가 많으면서도 도처에서 벌어지는 전쟁과 아귀다툼과 환경 위기 앞에서 망연자실할 뿐이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면 그야말로 '하느님, 맏소사!'다.

종교의 사전적 의미를 넘어서 종교의 문턱에서 만난 신앙은 이름 지어 부를 수 없는 그 어떤 초대 앞에서 있는 자신의 모습이다. 종교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자랑스러움 이전에 이미 자신의 얼굴에 뜨거운 숯 한 덩어리를 올려놓았다는 말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부끄러움의 연속이며, 스승의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는 자책의 긴 그림자가 늘 따라다니는 길이다. 구상 시인은 시인이기에 그 마음을 '하느님, 맏소사!'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인이기에 그 마음을 고백한 것이다. 종교인은 많고 넘치지만 신앙인이 없는 세상에서 시인의 고백은 또 하나의 이정표이다.

오늘 주님의 행복선언 앞에서 다시 옷깃을 여민다. 행복이란 말은 여전히 가슴 뛰는 말이며, 가난이란 말은 지금여기에서 함께하라는 낮은 목소리다. 2025년 희년의 문을 연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다. '희망의 순례자'란 말을 다시금 새긴다. '희년'과 '희망'과 '순례자'란 한 단어 한 단어를 꼭 꼭 소리 내어 세상 안으로 퍼지게 해보련다.

2025년 1학기 교구 성경공부 일정표

마산지구

본 당	개 강 일	과 정	과 목
가톨릭문화원	3월 4일(매주 화) 10:00	일반	가톨릭 서간·요한 묵시록
가톨릭문화원	3월 4일(매주 화) 12:30	통독	시서와 지혜서
구암동	3월 10일(매주 월) 19:30	일반	가톨릭 서간·요한 묵시록
산호동	3월 6일(매주 목) 20:15	일반	오경1
상남동	3월 5일(매주 수) 14:00	지혜	서간4
양덕동	2월 24일(매주 월) 10:00	지혜	역사서3
양덕동	2월 24일(매주 월) 19:30	일반	바오로 서간
영 산	3월 7일(매주 금) 10:40	은빛	구약1(창세기)
월 영	3월 4일(매주 화) 10:00	일반	시서와 지혜서
월남동	3월 6일(매주 목) 20:00	일반	바오로 서간
의 령	3월 5일(매주 수) 10:30	지혜	시서와 지혜서2
의 령	3월 8일(매주 토) 19:30	일반	오경2
진 동	3월 10일(매주 월) 19:30	첫걸음	신약2(서간과 요한 묵시록)
창 념	3월 6일(매주 목) 10:00	일반	바오로 서간
칠 원	3월 7일(매주 금) 10:40	지혜	역사서4
호 계	3월 4일(매주 화) 10:00	일반	시서와 지혜서

창원지구

본 당	개 강 일	과 정	과 목
가음동	3월 6일(매주 목) 10:00	일반	시서와 지혜서
대방동	3월 4일(매주 화) 10:00	일반	마태오 복음서
덕산동	3월 10일(매주 월) 19:30	일반	예언서
덕산동	3월 4일(매주 화) 10:00	일반	가톨릭 서간·요한 묵시록
반 송	3월 5일(매주 수) 10:40	일반	역사서2
반 송	3월 6일(매주 목) 10:40	은빛	신약4(요한서간과 요한묵시록)
사림동	3월 5일(매주 수) 19:30	일반	오경2
사파동	3월 10일(매주 월) 10:00	통독	구약1
사파동	3월 10일(매주 월) 20:00	일반	요한 복음서
사파동	3월 7일(매주 금) 10:40	일반	역사서1
생림선교	3월 5일(매주 수) 10:40	은빛	구약2(탈출기)
양 곡	3월 7일(매주 금) 10:40	일반	바오로 서간
용 잠	3월 5일(매주 수) 19:00	일반	마태오
중 동	3월 4일(매주 화) 10:00	은빛	구약1(창세기)
중앙동	3월 7일(매주 금) 10:40	일반	요한 복음서

진주지구

본당	개강일	과정	과목
가좌동	3월 5일(매주 수) 19:30	일반	마태오 복음서
거 창	3월 5일(매주 수) 19:30	일반	마태오 복음서
금 산	3월 6일(매주 목) 10:00	일반	시서와 지혜서
남 해	3월 5일(매주 수) 10:30	일반	시서와 지혜서
봉곡동	3월 7일(매주 금) 19:00	첫걸음	구약2(시서와 지혜서·예언서)
사 천	3월 10일(매주 월) 19:30	일반	예언서
사 천	3월 7일(매주 금) 10:40	일반	예언서
산 청	3월 5일(매주 수) 10:40	지혜	사도행전
산 청	3월 7일(매주 금) 19:30	일반	마태오 복음서
삼천포	3월 7일(매주 금) 19:30	일반	오경
상평동	3월 5일(매주 수) 19:30	일반	마태오 복음서
신안동	3월 4일(매주 화) 10:00	일반	루카·사도행전
옥봉동	3월 5일(매주 수) 19:30	일반	역사서2
평거동	3월 5일(매주 수) 10:40	은빛	신약4(요한서간과 요한묵시록)
하대동	3월 4일(매주 화) 10:00	첫걸음	구약2(시서와 지혜서·예언서)

거제·통영지구 복지시설

본 당	개 강 일	과 정	과 목
거 제	3월 7일(매주 금) 10:40	은빛	신약4(요한서간과 요한묵시록)
고 현	3월 7일(매주 금) 10:30	일반	시서와 지혜서
대 건	3월 6일(매주 목) 10:00	일반	예언서
북신동	3월 6일(매주 목) 10:00	일반	시서와 지혜서
북신동	3월 7일(매주 금) 10:30	지혜	역사서4
옥 포	3월 4일(매주 화) 19:30	일반	오경2
옥 포	3월 4일(매주 화) 19:30	통독	오경과 역사서
옥 포	3월 7일(매주 금) 10:40	일반	마태오 복음서
작은예수의집	3월 6일(매주 목) 10:00	은빛	신약3(로마서와 코린토서)
장 평	3월 6일(매주 목) 10:30	일반	요한 복음서
태평동	3월 5일(매주 수) 19:30	일반	루카·사도행전
태평동	3월 7일(매주 금) 11:00	은빛	신약2(요한 복음서)
하 청	3월 7일(매주 금) 10:40	일반	예언서

신청 : 본당 사전 접수

문의 : 성경사목부 055.249.7025~6



기억할 선종 사제
김재석(요셉) 신부
1987년 2월 18일



교구장 동정

성경교육봉사자 개강미사 및 임명식

일시: 2월 16일(주일) 11:30
장소: 성심원

사회복지시설협의회 정기총회 미사

일시: 2월 20일(목) 14:00
장소: 마산교구청

평협 정기총회 미사

일시: 2월 22일(토) 16:00
장소: 마산교구청

교구/본당

성경교육봉사자 임원, 조장 워크숍

일시: 2월 18일(화)
장소: 마산교구청

예비신학생 담임 교안 연수

일시: 2월 18일(화) 10:30
장소: 마산교구청

청소년분과 위원장 연수

일시: 2월 23일(주일) 13:00
장소: 마산교구청

직 수여식

일시: 2월 23일(주일) 11:00
장소: 광주가톨릭대학교

그라츠 자매교구 위원회

일시: 2월 27일(목) 11:00
장소: 구암동 성당

25년 전례와 꽃 예술학교 1학기 수강생 모집

일정: 3월 10일~6월 23일, 15주간

개강일: 3월 10일(월) 10:00

장소: 마산교구청

기초과정 (매주 월 13:30)

수강료: 20만 원 (재료비 별도)

대상: 제한없음 (성별, 나이, 학력, 종교 등)

봉사자과정 (매주 월 10:00)

수강료: 30만 원 (재료비 별도)

대상: 1) 기초과정 수료자 2) 본당 제대꽃꽂이 5년 이상 봉사자 3) 민간자격증 고급 이상 소지자 * 3가지 중 1가지 해당되면 됨.

지도자과정 (매주 월 13:30)

수강료: 35만 원 (재료비 별도)

대상: 1) 봉사자과정 수료자 2) 본당 제대꽃꽂이 5년 이상, 민간자격증 사범2 이상

* 1, 2 중 1가지 해당되면 됨

문의: 성소국 055-249-7061, 010-9088-4864

위원회/기관/단체

창원교정사목후원회 정기총회

일시: 2월 17일(월)
장소: 마산가톨릭문화원

진주교정사목후원회 정기총회

일시: 2월 18일(화)
장소: 마산가톨릭문화원

민족화해위원회 정기총회

일시: 2월 19일(수) 19:00
장소: 마산가톨릭문화원

사회복지시설협의회 정기총회

일시: 2월 20일(목)
장소: 마산교구청

교구 평협 정기총회

일시: 2월 22일(토)
장소: 마산교구청

기 타

자비사도회 2월 월례회

일시: 2월 22일(토) 14:00~16:00

장소: 주교좌 양덕동성당

내용: 하느님 생명 체험

강사: 그리스도수도회 김규한신부

준비물: 예수님 저는 당신을 의탁합니다.(소책자) 미사 준비

문의: 010-5883-4413

2025년 가톨릭교리신학원 통신(우편)신학과정 추가모집

대상: 수도자 및 평신도(만18세 이상)

내용: 가톨릭 신학 전반 24권 교재, 26과목 공부 추가 모집: ~2월 28일(금)까지

문의: 02-745-8339(<http://ci.catholic.ac.kr>)

성모술술투 무료 치유대(對) 피정

값없이 먹고 원없이 기도하자

기간: 매월 둘째주 금~주일(2박3일)

3월 7일(금)~9일(주일), 4월 11일(금)~13일(주일), 5월 9일(금)~11일(주일)

문의: 010-3209-3955(문자접수)

제주 성이시돌 자연순례피정 피정

이시돌 목장내 성지에서 섬과 성지순례 제주여행, 자연순례(2025년 피정 접수중)

대상: 개인, 가족, 일행, 소규모 단체

일시: 3월 8일~10일, 3월 13일~16일(추자도), 3월 18일~20일, 3월 23일~26일(추), 3월 29일~31일, 4월 1일~3일, 4월 4일~8일(추), 4월 10일~12일, 4월 14일~16일, 4월 25일~27일, 4월 29일~5월 2일(추)
접수: 02-773-1455 / 064-796-4182

청주 초정성령회관 1박2일 치유피정

일시: 매월 마지막 주 토 14:00~주일 14:00

회비: 2만원(청소년 무료)

강사: 김완식 요셉, 전국 유명강사

장소: 초정성령회관

문의: 043-213-9103 / 010-5482-6744

일상안에서의 영신수련

기간: 3월~6월 (16주 목요일, 토요일 14:00)

장소: 창원 가톨릭상담·영성센터(대방동)

문의 및 신청: 010-3370-1834

성령기도회	일시	장소	주제	강사	미사 주례	문의
교구	2월 17일(월) 19:00	남동성당	참된 행복	김명심 안드레아 수녀 (꽃동네 전국성령 부회장)	박혁호 미카엘 신부	010-5247-9900
청년	매주 (수) 19:30	가톨릭 문화원 4층	성령기도회	19:30 미사 봉헌 / 20:00 기도회		010-6667-7809

천차만차

대동모터스 매매 31호

모든 중고차

매매 알선 위탁

창원시 의창구 무억로 489(팔용동)

구자룡 할라리오 안경미 세라피나

010-6299-1137

제주 3월4일 전국 167곳 2월3일 36만 원

베트남, 마카오 3월5일 120만 원

북해도, 나카키, 오사카, 도쿄, 아키타 3월4일 120만 원

김해공항출발도 가능

마르코 투어

오한수 박오로

010-4239-1929

가톨릭

우리농 직매장

우리농

유기농산물·유기농식품 전문점

창원시 중동중앙로 47 어반브릭스상가 1층

마산합포구 오동북 16길 27 가톨릭문화원(구교구청)

055-266-7010/070-5147-7010

마산

예경요양병원

(치매, 중풍, 만성 노인성 질환)

055)249-5555 (구 마산 파티마병원 자리)

이사장 김석주 베네딕토 010-3592-8329

* 부모님처럼 모시겠습니다. *

가톨릭신문 성지순례

02.2281.9070/www.cttour.org

5/6~5/17 파티마, 스페인, 루르드 460만원

5/9~5/20 회년 이탈리아 435만원

5/22~6/2 성모발현지 피정순례 485만원

5/29~6/9 유럽 성모발현지 555만원

경대약국

·친절한 복약지도 (진주 외 지역은 전화상담도 가능)

·영양 복약상담

경상대병원 처방약은

경대약국에서

진주시 진주대로 816번길 18

(진주경상대학교병원 주차타워 맞은편)

055.755.2020

하종인 율리아노, 도승현 엘리사벳

교리교사 동계피정



교구 청소년국(담당: 최진우 아드리아노 신부)은 2월 1일부터 2일까지 마산가톨릭교육관에서 “나도 기도를 잘하고 싶다.”라는 주제로 교리교사 동계 피정을 진행하였다. 이번 피정에는 17개 본당에서 45명의 교리교사가 참석하였으며, 참가자들은 ‘작은자매 관상 선교수녀회’ 수녀들에게 기도하는 법과 미사의 중요함에 대해 배우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교리교사들은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기 전에 동계 피정을 통해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영적으로 힘을 얻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제6대 천주교마산교구장 이성호 리노 주교 취임



2025년 2월 3일(월) 오후 2시 이성호 리노 주교는 수원교구를 떠나 마산교구청에 도착하였다. 갑작스럽게 추워진 날씨에도 불구하고 교구청 사제들과 직원들은 교구장 주교를 반갑게 맞이하였으며 악수로 따뜻한 환영의 인사를 나누었다. 제6대 마산교구장의 공식 취임식을 알리는 착좌식은 2025년 2월 12일(수) 오후 2시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많은 사람의 기도와 축복 속에 거행되었다. 마산교구민은 2년여 동안 공식이었던 교구장의 취임으로 여러 분야의 새로운 행보에 기대를 표했다. 이성호 리노 주교는 2018년 6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수원교구 제1대리구장으로 지냈으며 2024년 12월 21일 마산교구장으로 임명되었다.



교부란 누구인가? 교부학이란 무엇인가? 2

이승언 토마스 아퀴나스 신부

고대 교회에서 아버지pater라는 용어는 신약성경 시대와 맞물려 있는 그리스 로마 문화권에서는 하나의 명예 칭호로서 사용되었습니다. 더불어 가정 제례 예식에서 가장pater familiae의 역할은 제사장과 일치했습니다. 이러한 단어의 용례는 아시아 문화권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는데, 구약성경에서 가정 제례 예식(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린 후 이를 나누는 행위)은 가족의 대표자로 역할을 수행하는 아버지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유대교에 뿌리를 두고, 그리스 로마 문화권의 영향 아래 탄생한 그리스도교는 그리스 로마 문화의 영향 아래 주어진 다양한 의미들을 통합하여 자신들만의 고유한 의미로 탄생시키기 시작했습니다: 1) 훌륭한 삶을 살았던 인물로 특별히 그리스도교 안에서는 신앙의 증거자, 혹은 신앙의 수호자를 지칭하는 의미합니다. 2) 부족의 대표로 유대교 최고 협의체의 장 혹은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장에 해당되는 역할을 수행하는 부족장patriarch 역시 아버지pater라는 단어가 어떻게 그리스도교로 수용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3) 그리스도교의 주교에 해당되는 ἐπίσκοπος라는 단어는 신앙의 수호자로서 신앙의 유산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직무에 봉사하면서 그 의미가 확대 되었고, 이는 2-3세기가 되면서 사도들의 후계자로서 그 고유성을 인정받기 시작했으며, 4세기부터는 오직 주교들만이 진리의 계승자, 수호자로서 Pater교부라는 칭호를 부여받기 시작했습니다.

고대 교회의 아버지의 의미에 대한 발전을 바탕으로 교부개념에 대한 연구를 한 가톨릭 교부 신학자 드롭너Hubertus Drobner 신부는 교부를 규정하는 4가지 원칙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교부학에서 교부는 고대antiquitas시대의 사람으로 모범된 삶sanctitas vitae을 살았던 사람이며 교리의 정통성doctrina orthodoxa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기에 교회의 인준approbatio ecclesiae를 받은 분들을 지칭합니다. 교부학은 따라서 신학에서 이러한 의미를 지닙니다: 교부학자들은 교부들의 모든 활동과 그 흔적들에 관심을 가집니다. 그러는 가운데 교부들이 발전시켰던 신학의 다양한 분과 학문들, 소위 교회의 전통이라 이야기 할 수 있는 모든 부분들을 하나로 연결하고 통합하여 교회가 살아왔던 방식인 시노달리타스synodalitas를 보여줍니다.